

2010 EAI 사회과학 대강좌

역사 속의 젊은 גד들



다산 정약용과 처지아 모이
L O 70 L L M M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하영선
01

E - Mail : ysha@snu.ac.kr

I. 만남

1. 동주의 정맥

2. 중국과 한반도

✓ 가. 1983년 봄 어느날

다산 서세 100주년(1936)에 이은 150주년(1986) 행사를 위해 동주 이용희는 당시 소장 사회과학자들 중심으로 다산의 정치사상연구를 요청

✓ 나. 다산공부를 시작하기 위해 우선 여유당 전집의 시문집을 통해 다산의 삶과 앎의 문제의식을 찾음.

I. 만남

2. 다산의 정치학적 접근

2. 다산의 정치학적 접근

- ✓ 가. 다산의 핵심문제의식은 국망(國亡)의 위기를 겪고 있는 조선조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조와 함께 왕권강화와 유민의 정치개혁을 추진해서 ‘신아지구방(新我之舊邦)’을 이루는 것.
- ✓ 나. 그러나 기존 다산연구는 경학연구와 사회경제사 연구중심으로 진행되고 다산의 사고와 행동의 핵심 연결고리인 정치학 연구가 빠져 있었으므로 정치학 연구를 기반으로 그의 경학과 사회경제개혁론의 의미를 정치학적 시각에서 재해석함.

I. 만남

3. 다산 정치개혁론의 복합구조

3. 다산 정치개혁론의 복합구조

- 정조의 왕권강화와 유민의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 ✓ 가. 공권력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경학론
 - ✓ 나. 공권력의 유지/관리를 위한 개혁론
 - ✓ 다. 공권력의 장악을 위한 군사론



II. 삶

1. 귀농(歸農)의 실험 공부와 처지안

1. 귀농의 실학공부와 천지암(1762년~1782년)

년도	연호	나이	내용
1762년	영조 38년	1세	6월 16일 광주군 초부면 마현리(지금의 양주군 와부면 능내리)에서 4남 1녀 중 4남으로 출생. 본관은 압해(押海). 관명은 약용(若鏞), 자는 미용(美鏞)·송보(頌甫), 호는 사암(俟菴)·다산(茶山)이다. 다산은 사도세자의 변고로 시파에 가담했다가 벼슬을 잃은 부친 정재원(丁載遠)이 귀향할 때 출생했기 때문에 자를 귀농(歸農)이라고도 했음.
1763년	영조 39년	2세	안두창(豌豆瘡)을 앓음
1765년	영조 41년	4세	천자문을 배우기 시작
1767년	영조 43년	6세	부친인 정재원이 연천현감으로 부임하자 그곳에 따라가 부친의 교육을 받음

1. 귀농의 실학공부와 천진암(1762년~1782년)

1768년	영조 44년	7세	오언시를 짓기 시작했다. ‘산’이라는 제목의 시에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렸으니, 멀고 가까움이 다르기 때문[小山蔽大山 遠近地不同]”이라는 구절에 진주공(晉州公 : 다산의 아버지)이 그의 명석함에 놀람. 천연두를 앓아 오른쪽 눈썹 위에 흔적이 남아 눈썹이 세 개로 나누어져 스스로 호를 삼미자(三眉子)라고 함. 《삼미자집》은 10세 이전의 저작이나 전하지 않음.
1770년	영조 46년	9세	모친 해남 윤씨가 죽음. 모친은 고산(孤山) 윤선도(尹善道)의 후손. 윤선도의 증손인 공재(恭齋) 윤두서(尹斗緒)는 다산의 외증조부가 됨. 다산의 얼굴 모습과 수염이 공재를 많이 닮았음. 다산이 일찍이 문인들에게 “나의 정분(精分)은 외가에서 받은 것이 많다.” 라 함
1771년	영조 47년	10세	경서(經書)와 사서(史書)를 수학. 이때 경서와 사서를 본떠 지은 글이 자기 키만큼이나 됨.

1. 귀농의 실학공부와 천진암(1762년~1782년)

1774년	영조 50년	13세	두시(杜詩)를 본떠 시를 지었는데, 부친의 친구들에게 칭찬을 받음.
1776년	영조 52년	15세	관례를 치르고 풍산 홍씨 홍화보(洪和輔)의 딸과 결혼. 진주공이 호조좌랑이 되어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따라 살림집을 세내어 서울 남촌에 살았음.
1777년	정조 1년	16세	선배 이가환과 자형 이승훈을 주종하여 성호(星湖) 이익(李瀼)의 유고를 보고 사숙. 진주공의 임소인 화순으로 따라갔다. 청주, 전주 등지를 유람하며 시를 지음.
1778년	정조 2년	17세	전남 화순 동복현의 물염정(勿染亭)과 광주 서석산(瑞石山)을 유람. 겨울에 둘째형 약전과 화순현에 동림사(東林寺)에서 독서하며 《맹자》를 읽음.

1. 귀농의 실학공부와 천진암(1762년~1782년)

1779년	정조 3년	18세	진주공의 명으로 공령문(功令文)을 공부했고, 성균관에서 시행하는 승보시(陞補試)에 선발됨. 손암 정약전의 스승 녹암 권철신이 겨울 천진암(天真庵) 주어사(走魚寺)에서 강학회를 열었음. 눈 속에 이벽이 밤중에 찾아와 촛불을 켜놓고 경전 토론을 했으며, 7년후 서학에 대한 비방이 생겨, 강학회가 다시 열릴 수 없게 됨.
1780년	정조 4년	19세	진주공이 예천군수로 부임하자 그곳에서 글을 읽음. 반학정(伴鶴亭), 축석루(矗石樓)를 유람하며 독서하고 시를 지음. 겨울에 진주공이 어사의 모함으로 예천군수를 사임하고 마현으로 돌아옴.
1781년	정조 5년	20세	서울에서 과시(科詩)를 익힘. 7월에 딸을 낳았는데, 5일 만에 죽음.
1782년	정조 6년	21세	서울 창동(倉洞: 지금의 남대문 안)에 집을 사서 살았음

II. 삶

2. 정조와의 운명적 만남

2. 정조와의 운명적 만남(1783년~1800년)

1783년	정조 7년	22세	<p>성균관에 들어감.</p> <p>2월 순조의 세자책봉을 경축하기 위한 증광감시(增廣監試)에서 둘째형 약전과 함께 경의(經義) 초시(初試) 합격.</p> <p>4월 회시(會試)에서 생원으로 합격. 회현방으로 이사.</p> <p>9월 12일 큰아들 학연(學淵)이 태어남.</p>
1784년	정조 8년	23세	<p>향사례(鄉射禮)를 행하고, 〈중용강의〉 80여 항목을 바침. 율곡의 기발설(氣發說)을 위주로 했는데 정조가 감탄. 이벽(李磔)을 따라 배를 타고 두미협(斗尾峽)을 내려가면서 서교(西教) 얘기를 듣고 책 한 권을 봄. 《성호사설》을 통해 상위수리(象緯數理)에 관한 책들과 서양인 방적아(龐迪我)의 《칠극(七克)》, 필방제(畢方濟)의 《영언여작(靈言叢)》, 탕약망(湯若望)의 《주제군징(主制群徵)》 등을 열람.</p> <p>6월 16일, 반제(泮製)에 뽑힘. 9월 28일, 정시(庭試)의 초시에 합격</p>

2. 정조와의 운명적 만남(1783년~1800년)

1785년	정조 9년	24세	<p>2월 25·27일, 4월 16일 반제에 뽑혀 상으로 종이와 붓을 하사받음. 10월 2정시의 초시에 합격. 11월 감제(柑製)의 초시에 합격. 12월 1일 임금이 춘당대에 음식을 들고 식당명(食堂名)을 짓도록 했는데, 다산이 수석을 하여 《대전통편(大典通編)》 한 질을 하사받음.</p>
1786년	정조 10년	25세	<p>2월 4일 별시(別試)의 초시에 합격 / 7월 29일 둘째 아들 학유(學游)가 출생 / 8월 6일 도기(到記: 식당장부)의 초시에 합격</p>
1787년	정조 11년	26세	<p>1월 26일, 3월 14일 반제에 수석으로 뽑힘. 《국조보감(國朝寶鑑)》 한 질과 백면지(白綿紙) 1백 장을 하사받음 / 8월 21일 반제에 뽑혔고, 8월 성균관 시험에 합격. 《병학통(兵學通)》을 교지와 함께 하사받음. 12월 반제에 뽑혔고, 다산은 과거 보는 일을 그만두고 경전의 뜻을 궁구하려는 마음을 가짐.</p>

2. 정조의 운명적 만남(1783년~1800년)

1788년	정조 12년	27세	<p>1월 반제에 합격. 희정당(熙政堂)에서 정조가 책문(策文)이 몇 수인가를 물었음. 3월 반제에 수석 합격하여, 희정당에서 정조가 초시와 회시의 회수를 질문.</p>
1789년	정조 13년	28세	<p>1월 반제에 합격. 임금이 4번 초시를 본 것을 확인하고 급제하지 못함을 민망히 여김.</p> <p>3월 전시(殿試)후 7품관 희릉 직장(禧陵直長)에 제수되고, 초계문신(抄啓文臣)에 임명. 5월 부사정(副司正)으로 옮김. 6월 가주서(假注書)에 제수됨. 문신 시험에 수석을 5번하고, 수석에 비교된 것이 8번임. 각과문신(閣課文臣)으로 울산 임소로 진주공을 찾아뵈. 겨울에 주교(舟橋)설치 공사에서, 다산이 규제(規制)를 만들어 공(功)을 이룸. 12월 셋째 아들 구장(懼詳)이 태어남.</p>

2. 정조와의 운명적 만남(1783년~1800년)

1790년	정조 14년	29세	<p>2월 26일 한림회권(翰林會圈)에서 뽑혔고, 29일에 한림소시(翰林召試)에서 뽑혀 예문관 검열(檢閱)에 단독으로 제수됨</p> <p>3월 해미현(海美縣)으로 정배(定配)., 19일만에 용서받아 풀려남</p> <p>5월 예문관 검열로 다시 들어가고, 용양위(龍驤의 부사과(副司果)로 승직</p> <p>7월 사간원 정언(正言)에 제수</p> <p>9월 사헌부 지평(持平)에 제수되어 무과감대(武科監臺)에 나아감</p>
1791년	정조 15년	30세	<p>5월 사간원 정언에 제수됨 / 10월 사헌부 지평에 제수됨.</p> <p>겨울에 <시경의(詩經義)> 800여 조를 지어올려 임금의 칭찬을 받음. 임금이 비지(批旨)를 내리기를 “널리 백가를 인용하여 문장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무궁하니, 참으로 평소 학문이 축적되어 해박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와 같이 훌륭하게 할 수 있겠는가?” 라 함. 겨울에 호남에서 진산사건(珍山事件: 辛亥邪獄으로 최초의 천주교도 박해사건)이 발생. 목만중, 이기경, 홍낙안 등이 공모하여 서교(西敎)를 믿는 사람들을 모두 제거하고자 함.</p>

2. 정조와의 운명적 만남(1783년~1800년)

1792년	정조 16년	31세	<p>3월 22일, 홍문관록(弘文館錄)에 뽑혔으며, 28일 도당회권(都堂會圈)에서 뽑혀, 29일 홍문관 수찬(修撰)에 제수됨. 임금이 남인 중 사간원·사헌부의 관직을 이을 사람을 다산이 채제공과 상의하여 작성한 28명의 명단에 따라 배치함.</p> <p>4월 9일 진주 임소에서 진주공의 상(喪)을 당함.</p> <p>5월 충주에 반장(返葬)하고, 마현으로 돌아와 곡함. 광주(廣州)에 여막을 짓고 거처. 겨울에 수원성의 규제를 지어 올렸고, <기중가도설(起重架圖說)>을 지어 올려서 4만 냥을 절약.</p>
1793년	정조 17년	32세	<p>4월 소상(小祥)을 지내고 연복(練服)으로 갈아입음. 여름에 화성 유수로 있던 채제공이 돌아와 영의정이 됨.</p>
1794년	정조 18년	33세	<p>6월 삼년상을 마침. / 7월 23일 성균관 직강(直講)에 제수.</p> <p>8월 10일 비변랑(備邊郎)에 임명하는 계(啓)가 내림</p> <p>10월 27일 홍문관 교리(校理)에 제수되었다가 28일 수찬에 제수.</p> <p>12월 7일, 경모궁(景慕宮 : 정조의 아버지인 장헌세자의 神位를 모시던 궁)에 존호(尊號)를 추존해 올릴 때 도감(都監)의 도청(都廳: 우두머리)이 됨.</p>

2. 정조와의 운명적 만남(1783년~1800년)

1795년 정조 19년 34세

1월 17일 사간원 사간(司諫)에 제수. 품계가 통정대부에 오르고 동부승지에 제수. 2월 17일 병조 참의에 제수되어, 임금이 수원으로 행차할 때 시위(侍衛)로서 따름.

3월 3일, 의궤청(儀軌廳) 찬집문신(纂輯文臣)으로 계하(啓下). 규영부(奎瀛府) 교서승(校書承) 부임을 명받음. 20일 우부승지(右副承旨)에 제수. 《화성정리통고(華城整理通攷)》의 찬술과 원소(園所: 장헌세자의 능인 顯隆園의 터)를 설치하라는 명을 받고, 이가환·이만수·윤행임 등과 합작. / 4월 규영부 교서직에서 정적들의 모함으로 정직(停職). 다산이 이때부터 가슴속에 우울한 마음이 생김.

7월 26일 주문모입국사건으로 금정도(金井道) 찰방(察訪)으로 외보(外補)됨. 내포(內浦)의 명문자제들이 소문을 듣고 모여 수사학(洙泗學)을 강학하고, 사칠(四七)의 뜻과 정전(井田) 제도에 대해서 물었으므로 별도로 문답을 만들어 〈서암강학기(西巖講學記)〉를 지음. 성호유고를 《가례질서(家禮疾書)》를 기준으로 교정. 《퇴계집》을 가져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세수하고, 바로 편지 한 편을 읽은 뒤에 아전들의 인사를 받았음. 정오가 되면 연의(演義) 1조(一條)씩을 수록(隨錄)하여 스스로 경계하고 성찰하고, 〈도산사숙록(陶山私淑錄)〉 33칙(則)을 지음. 12월 20일 용양위 부사직으로 옮겨짐

2. 정조의 운명적 만남(1783년~1800년)

1796년	정조 20년	35세	<p>10월 규영부 교서가 됨. 《사기영선(史記英選)》의 제목과 《규운옥편(奎韻玉篇)》의 범례에 자문. 이만수 등과 《사기영선》을 교정.</p> <p>12월 1일, 병조 참지(兵曹參知), 3일에 우부승지에 제수됨. 다음날 좌부승지에 올랐다가 부호군(副護軍)으로 옮겨짐.</p>
1797년	정조 21년	36세	<p>3월 대유사(大酉舍)의 향연에 참석하고 춘추경전(春秋經傳)을 교정. 이서구·김조순과 함께 두시(杜詩)를 교정. 교서관(校書館)에 입직(入直)하면서 《춘추좌씨전》을 교정.</p> <p>6월 22일 좌부승지를 사퇴하는 〈변방사동부승지소(辨謗辭同副承旨疏)〉를 올림. 윤운 6월 2일, 곡산 부사(谷山府使)에 제수됨. 겨울에 홍역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처방을 기록한 《마과회통(麻科會通)》 12권 완성</p>
1798년	정조 22년	37세	<p>4월 《사기찬주(史記纂註)》를 올림. 겨울에 곡산의 좁쌀, 콩을 돈으로 바꾸어 올리라는 영(令)을 철회하도록 요청해 허락받음. 《오례의도척(五禮儀圖尺)》과 실제 척이 달라 바로잡음. 종횡표를 만들어 호적과 군적 정리</p>

2. 정조와의 운명적 만남(1783년~1800년)

1799년	정조 23년	38세	<p>2월 황주 영위사(黃州迎慰使)로 임명하는 교지를 받음.</p> <p>4월 내직으로 옮겨져 병조 참지에 제수. / 5월 동부승지를 제수 받고 부호군에 옮겨짐. 형조 참의에 제수됨. <초도둔우계(椒島屯牛啓)>를 올림.</p> <p>10월 조화진과 충청감사 이태영이 이가환, 정약용과 주문모 밀입국을 보고한 한영익 부자를 서교에 탐닉했다고 상주. 정조는 무고라고 일축.</p> <p>12월 《춘추좌전》의 세서례(洗書禮) 때 어제시(御製詩)에 화답하는 시를 지어 올림. 넷째 아들 농장(農祥)이 태어남.</p>
1800년	정조 24년	39세	<p>봄에 다산은 세로(世路)가 위험하다고 느껴 전원으로 돌아갈 계획.</p> <p>6월 28일 정조 승하 / 겨울에 졸곡(卒哭)을 지낸 뒤 고향인 열수(洌水)가로 돌아가 초천(苕川) 별장에서 형제가 모여 경전을 강(講)하고, 그 당(堂)에 ‘여유(與猶)’ 라는 편액을 달았음. 이 해에 《문헌비고간오(文獻備考刊誤)》 완성</p>



II. 삶

3. 다산의 강진유배

3. 다산의 강진유배(1801년~1818년)

1801년	순조 1년	40세	2월 8일 사간원의 계(啓)로 인하여 9일 하옥됨. ‘책룡사건(冊籠事件)’의 발단. 19일만에 출옥되어 장기(長鬢)로 유배. 손암(巽菴)은 신지도(薪智島)로 유배됨. 3월에 장기에 도착하여 《이아술(爾雅述)》 6권과 《기해방례변(己亥邦禮辨)》을 지었는데, 겨울 옥사 때 분실. 여름에 성호가 모은 백개의 속담에 운을 맞춰 지은 《백언시(百諺詩)》를 지음. 10월, 황사영 백서사건으로 손암과 함께 다시 투옥. 11월, 다산은 강진현(康津縣)으로, 손암은 흑산도(黑山島)로 유배.
1802년	순조 2년	41세	큰아들 학연이 와서 근친(觀親). 겨울에 넷째 아들 농장이 요절..
1803년	순조 3년	42세	봄에 <단궁잠오(檀弓箴誤)>가 이루어짐. 여름에 <조전고(弔奠考)>가 이루어짐. 겨울에 <예전상의광(禮箋喪儀匡)>를 지음.
1804년	순조 4년	43세	봄에 <아학편훈의(兒學編訓義)>를 지음.

3. 다산의 강진유배(1801년~1818년)

1805년	순조 5년	44세	여름에 <정체전증변> (일명 <기해방례변>) 3권이 이루어짐. 겨울에 큰아들 학연이 찾아옴. 보은산방(寶恩山房)에서 밤낮으로 《주역》과 《예기》를 가르침. 의심스러운 곳의 질문을 답변한 <승암문답(僧菴問答)> 52칙 지음.
1807년	순조 7년	46세	5월에 장손(長孫) 대림(大林)이 태어남. 7월에 형의 아들 학초(學樵)의 부음을 받고 묘갈명을 씀. 《상례사전(喪禮四箋)》 50권이 완성됨. 겨울에 <예전상구정(禮箋喪具訂)> 6권이 이루어짐.

3. 다산의 강진유배(1801년~1818년)

1808년	순조 8년	47세	<p>봄에 다산(茶山)으로 옮겨 거처. 다산은 두 암자를 짓고, 서적 천여 권을 쌓아놓고 글을 지으며 석벽(石壁)에 ‘정석(丁石)’ 두 자를 새김. 《주역》의 어려운 부분을 들 주어 <다산문답> 1권을 씀. 봄에 둘째 아들 학유가 방문. 여름에 가계(家誡)를 씀. 겨울에 <제례고정(祭禮考定)> 완성. 또 《주역심전(周易心箋)》 완성. <독역요지(讀易要旨)> 18칙을 지었고 <역례비석(易例比釋)> 을 지음. <춘추관점(春秋官占)> 에 보주(補注)를 냄. <대상전(大象傳)> 과 <시괘전(蓍卦傳)> 을 주해. <설괘전(說卦傳)> 을 정정함. 《주역서언(周易緒言)》 12권 완성</p>
1809년	순조 9년	48세	<p>봄에 <예전상복상(禮箋喪服商)> 완성. 《상례외편(喪禮外篇)》 12권 완성. 가을에 《시경강의(詩經講義)》를 산록(刪錄)함. 내용은 《모시강의(毛詩講義)》 12권을 첫머리에 놓고, 따로 《시경강의보유》 3권을 지음.</p>

3. 다산의 강진유배(1801년~1818년)

1810년	순조 10년	49세	봄에 《관례작의(冠禮酌儀)》 · 《가례작의(嘉禮酌儀)》를 지음. 봄, 여름, 가을에 3차례 가계(家誡)를 씀. 9월에 큰아들 학연이 억울함을 상소해서 특별히 은중이 있었으나, 홍명주의 상소와 이기경의 대계(臺啓)로 석방되지 못함. 겨울에 《소학주관(小學珠串)》을 완성
1811년	순조 11년	50세	봄에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 겨울에 〈예전상기별(禮筭喪期別)〉를 완성.
1812년	순조 12년	51세	봄에 《민보의(民堡議)》를 지음. 겨울에 《춘주고징(春秋考徵)》 12권이 완성됨. 〈아암탑문(兒菴塔文)〉을 지음.

3. 다산의 강진유배(1801년~1818년)

1813년	순조 13년	52세	<p>겨울에 《논어고금주(論語古今注)》 40권 완성. 이강희(李綱會), 윤동(尹洞)이 도움. 《논어》에 대해 이의(異義)가 많아 〈원의총괄(原義總括)〉 표를 만들어 〈학이(學而)〉 편부터 〈요왈(堯曰)〉 편까지의 원의를 총괄한 것이 175조가 됨. 춘추삼전(春秋三傳)이나 《국어》에 실린 공자의 말을 모아 한 편을 만들어 책 끝에 붙인 〈춘추성언수(春秋聖言蒐)〉 63장을 완성</p>
1814년	순조 14년	53세	<p>4월 장령(掌令) 조장한(趙章漢)이 사헌부에 나아가 대계(臺啓)를 정지시켜, 죄인명부에서 이름이 삭제됨. 의금부에서 관문(關文)을 발송하여 석방시키려 했으나 강준흠(姜浚欽)의 상소로 발송하지 못함. / 여름에 《맹자요의(孟子要義)》 완성. / 가을에 《대학공의(大學公議)》 3권 완성. 《중용자잠(中庸自箴)》 3권과 《중용강의보》 완성. / 겨울에 《대동수경(大東水經)》이 이루어짐. 또 이여홍(李汝弘: 李載毅)의 편지에 답하여 학문과 사변의 공(功)을 논함.</p>

3. 다산의 강진유배(1801년~1818년)

1815년	순조 15년	54세	봄에 <심경밀험(心經密驗)> 과 <소학지언(小學枝言)> 이 이루어짐.
1816년	순조 16년	55세	봄에 《악서고존(樂書孤存)》이 이루어짐. 6월, 손암(巽菴)의 부음을 들음. 손암의 묘지명을 씀.
1817년	순조 17년	56세	가을에 《상의절요(喪儀節要)》가 이루어짐. 《방례초본(邦禮艸本)》의 저술을 시작했으나 끝내지는 못함. 뒤에 《경세유표》로 개명.
1818년	순조 18년	57세	봄에 《목민심서》를 지음. 여름에 《국조전례고(國朝典禮考)》 2권을 완성. 8월에 이태순(李泰淳)의 상소로 다산을 떠나 14일 비로소 열수의 본집으로 돌아옴.



II. 삶

4. 여유당의 말년

4. 여유당의 말년(1819년~1836년)

1819년	순조 19년	58세	여름에 《흙흙신서(欽欽新書)》가 이루어짐. 이 책의 처음 이름은 《명청록(明清錄)》이었는데 후에 우서(虞書)의 “흙재 흙재(欽哉欽哉)” 즉 형벌을 신중히 하라는 내용에 따라 고침. 겨울에 《아언각비(雅言覺非)》 3권이 이루어짐.
1820년	순조 20년	59세	겨울에 응산(翁山) 윤정언(尹正言)의 묘지명을 지음.
1821년	순조 21년	60세	봄에 〈사대고례산보(事大考例刪補)〉가 이루어짐. 겨울에 남고(南阜) 윤참의 지범(尹參議持範)의 묘지명을 씀.
1822년	순조 22년	61세	이 해는 다산의 회갑년. 〈자찬묘지명〉을 지음. 윤지평 지눌(尹持平持訥)의 묘지명과 이장령 유수(李掌令儒修)의 묘지명을 씀. 신작(申綽)의 편지에 답하면서 육향의 제도를 논함.
1823년	순조 23년	62세	9월 28일 승지(承旨) 후보로 낙점되었으나 얼마 후 취소

4. 여유당의 말년(1819년~1836년)

1827년	순조 27년	66세	10월 윤극배(尹克培)가 ‘동뢰구언(冬雷求言)’으로 상소하여 다산을 무고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함
1830년	순조 30년	69세	5월 5일 탕제(湯劑)의 일로 부호군(副護軍)에 단부(單付)됨. 익종(翼宗 : 순조 아들)이 위독하여 약원(藥院)에서 약을 논의할 것을 청함. 약을 달여 올리기로 했으나 6일 세상을 떠남.
1834년	순조 34년	73세	봄에 《상서고훈(尙書古訓)》과 《지원록(知遠錄)》을 개수(改修)하고 합하여 모두 21권으로 만들었음. 가을에 다산에서 《상서》를 읽으며 매색(梅蹟)의 잘못된 곳을 논술했던 《매씨서평(梅氏書平)》을 개정. 순조의 환후가 급해 명을 받고 출발했으나 홍화문(弘化門)에서 초상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옴.

4. 여유당의 말년(1819년~1836년)

1836년	헌종 2년	75세	<p>2월 22일 진시(辰時)에 생을 마침. 이 날은 다산의 회혼일(回婚日)로 족친과 문생들이 다 모였음. 장례 절차는 유명(遺命) 및 <상의절요(喪儀節要)>를 따랐음. 회갑 때 다산이 장례 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유명을 적어 두어 두었음.</p> <p>4월 1일 유명대로 여유당 뒤편 광주 초부방(草阜坊) 마현리(馬峴里) 자좌(子坐)의 언덕에 장사지냄.</p>
1910년			<p>7월 18일 특별히 정헌 대부(正憲大夫) 규장각 제학(奎章閣提學)을 추증(追贈)하고 문도공(文度公)의 시호를 내림</p>

* 다산문집

- ◎ 다산 문집의 판본은 필사본으로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여유당집(與猶堂集)》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소장본 《열수전서(洌水全書)》, 활자본으로 1936년 신조선사(新朝鮮社)에서 간행한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등이 있다. 영인본으로 1985년 여강출판사가 간행한 《여유당전서》(전20책)이 있다.
- ◎ 다산 정약용 연보 : 이 연보는 송재소, 《다산시연구》(창작과비평사, 1986)에 실린 〈사암선생연보(俟菴先生年譜)〉를 참고로 작성한 것이다. 〈사암선생연보〉는 다산의 현손(玄孫)인 정규영(丁奎英)이 1921년에 작성한 것으로 다산 연보 중에서 가장 잘 정리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III. 압

1. 조선조 당시 허학의 비판

1. 조선조 당시 허학의 비판

✓ 5학론

: 성리학/훈고학/문장학/과거학/술
수학을 집중적으로 비판

III. 압

2. 정치적 정당성 싸움으로서의 경학 연구

2. 정치적 정당성 싸움으로서의 경학 연구

✓ 가. 6경 4서 연구

다산의 詩/書/禮/樂/易/春秋/四書연구는 단순히 경학을 위한 경학연구가 아니라 당시 처절한 노론 벽파와의 정치권력투쟁으로서 전개된 명분 싸움이었음. 따라서 정조 서세후 천주교인으로 몰리는 생사의 기로에 서서 18년 강진유배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서교와 배치되는 <상례사전(喪禮四箋)>연구 그리고 주례를 밝히기 위한 <周易四箋>연구에 바쳤으며 주자학을 넘어서는 사서연구를 통해서 왕권강화를 모색함.

2. 정치권력의 유지관리

가. 1표2서

경세유표(1817): 중앙행정제도개혁안

목민심서(1818): 지방행정개혁안

흙흙신서(1819): 형정(刑政)개혁안

나. 기타

사대고례산보(1821):

3. 정치권력의 장악을 위한 군사론

비어고

민보의

군기론

척발위론/요동론/일본론

- 정조는 수원성의 장용영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권력의 군사적 기반과 청조에 대한 조심스러운 안보론에 각별한 신경을 썼으며 다산은 정조의 이러한 구상을 충실히 이행했음.

4. 기타

시문집

IV. 남김



다산이 남긴 것

- ✓ 가. 19세기 고종시대. 다산 개혁론에 대한 관심
- ✓ 나. 1902년 장지연 주도로 광문사에서 <목민심서> <흫흫신서> 발간
- ✓ 다. 1936년 위당 정인보/민세 안재홍등을 중심으로 여유당전집 발간
- ✓ 라. 다산전집 정보 발간 작업

